

“좌선으로 영재 정신수양”

민족사관 고등학교

禪·다도·서도 정규교과 채택 ‘교실선방’ ‘재미있다’ ‘유익하다’ 등 학생들 긍정반응

불교의 정통수행법인 선(禪)이 한 고등학교의 정규교과목으로 채택됐다. 학생보다 교사가 많은 과격적인 투자, 전원기숙사 생활, 고입성적 상위 1% 이내에 든 수재들만 뽑아 벌써부터 한국의 이튼스쿨로 불리며 화제가 되고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

고등학교 정규교과목으로 선이 채택되기는 이 학교가 처음이다. 1주일에 4차례 실시한다. 선실수는 불교종파학교에서도 특종종교를 가르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다.

일찍감치 아침식사를 마친 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맘 때의 여느 학교면 방학을 맞아 행하기 그지없지만 이곳은 학생들의 바쁜 발걸음과 웃음소리가 소란스럽기까지 하다. 지난 1월 11일 입소식 이후 매일 아침 7시50분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씩 선을 모시는 여정에 신도들의 지극 정성이 이어졌다. 입재때 5천여명이 발원한 이후 그해 11월 미륵불 조성예정지에 스키리조트를 끌고 1백여명이 철야정진을 했으며 9년부터 94년까지 1천일 철야정진을 하여 지난해 4월 착공식에 이어 11월과 지난 1월에는 부처님오신날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석주스님, 총무원장 월주스님, 종회의장 실정스님, 불교신문사 사장 성문스님, 이관희 서남재단이사장, 홍성우 민주총회위원장, 권문용 강남구청장, 김원경 강남구의회위원장, 금동주 강남경찰서장, 이일해 대우건설사장 등 3만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오고 반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지그시 눈을 감는다. 오늘의 화두는 ‘조율(調律)’.

어느 사람이 책보기에만 매달려 글내 눈이 멀었다는 옛얘기를 들려준 후 “너무 졸려도, 너무 조여도 안된다. 내 몸을 누가 조이거나 푸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나를 다스리자”는 법문(?)이 주어졌다. 이내 교실은 선방으로 변한다.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선을 교과목으로 채택한 이유는 간단하다. “학생들에게 선을 가르쳐

정신집중력을 높임으로써 학습능력을 올리고 정서를 순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은 가장 뛰어난 정신수행법입니다. 불교만의 것이 아니죠” 이규철 교장선생님의 설명이다.

학생들의 반응도 좋다. 상남메성중학교 졸업생인 김승겸은 “시간 가깝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앉았기는 처음”이라며 “처음에는 5분도 안되어 몸이 뒤틀리고 지루했으나, 지금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며 선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지도교사 한영호선생님은 “요즘 학생들은 서양식의 교육을 받아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선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방식에서 전일적인 사고의 전환을 이루게 하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학생들이 부담감없이 좌선법을 통해 익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을 아는 것만도 큰 수확 아니겠어요?”

황성=정성운 기자



◇‘교실이 곧 선방’ 민족사관고등학교는 불교의 정통수행법인 선을 정규교과목으로 채택해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관음종 총회의원 27명 선출

관음종은 지난달 29일 제33회 정기중앙총회를 열어 올해 회고세화담의 해로 정하고 지난해보다 1억여원이 증액된 14억 2천450만원의 새해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장에 법륜스님(인촌 흥륜사) 부의장에 세현스님(세원암) 법호스님(용흥사) 등 8대총회의원 27명을

새로 뽑는 한편 기타토의에서는 종회발의로 김영삼대통령 국방부추예와 관련 규약명정서를 채택했다.

구인사 정초참배 89회 탄신법회

정초참배를 실시한다. 이 행사에는 천태종의 전국 사암과 각단체에서 25~30인명의 중도들이 구인사를 참배및 중정스님을 예방하게 된다.

자사 및 전국사원에서 총지종조 원정 대동사 89회 탄신법회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효강 통리원장은 축사를 통해 “종주의 유지를 받들어 생활불교 실천불교로서 더욱 매진할 것”과 “올해에는 청소년 교화사업과 불교교양대학개설 및 사회복지재단설립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총지종 원정대동사 89회 탄신법회

총지종은 지난 29일 본산 총

당하다며 지원을 거부했다. 지난해 29일 열린 선학인 95년도 결산사회에서는 ‘종단에서 한 관계가 결국 단 살림(?)을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규정

치려야 한다는 막 다른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감을 느낀 조계종 총지종원회 소속 이사 3인에 대한 등원통지서를 보내면서 가시화 되었다. 등원 당사 스님들은 “종단에서 나가려면 스스로 자립해야 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출두하라는 것은 부

하고 있다. 조계종과 선학원 갈등의 본질은 종단과 종단간하법인체와의 관계에 있다.

현재 조계종 산하에는 선학원등 재단법인 24개, 사단법인 7개, 복지법인 9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종단 관계자

들은 이들 법인들이 사회법을 내세워 위무이행에 소홀, 종단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종단은 법인 대책특별위를 구성하고 선학원에 대해 실질적인 탈종을 의미

원 1/3추천권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종단 귀속등의 정관 변경을 요구했던 것이다.

오늘의 종단과 선학원 갈등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이제 이열차는 이유불분하고 멈추어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어떠한 변명도 종단변역에 대한 죄과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동안의 양심을 버리고 서기가 다시 만나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모두가 조계종의 일불제자이기 때문이다.

“화합합니다”... 청정승가 구현

의 중앙총무기금 스님들이 호개합장을 하고 인사발령(전계대상)이 남송하는 보살계본을 따라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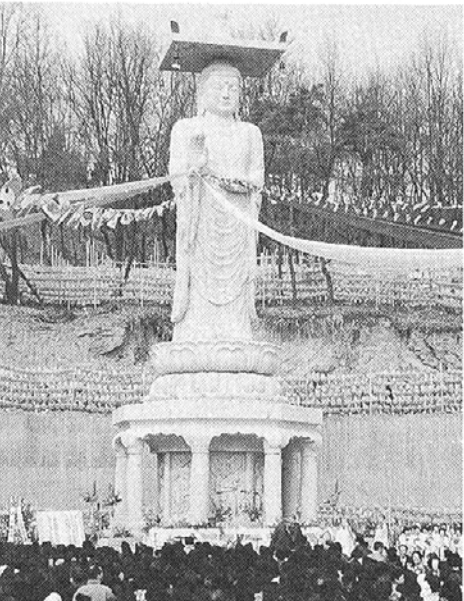
이날 열린 포살법회는 조계종이 청정승가를 구현하고 종단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열린 것으로 총무원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포살에 앞서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계본

은 없었는지의 참회속에 1시간 가량 이어졌다.

포살법회가 끝나자 월주스님은 “참으로 환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겨울 하나하나마다 죄를 범한 이가 대중에 고백한 후에도 참회해이하는 진정적인 포살의 형식을 살리지 못하고 약식으로 끝내 실속없는 법회였다는 아쉬움을 주기도 했다.

(업)



◇민족통일을 염원하며 조성한 봉은사 미륵대불.

봉은사 미륵대불 10년불사 회향

도심 포교도량 위상 재정립

강남 봉은사(주지 무상)가 지난 1월27일 미륵대불 점안법회를 봉행함으로써 선종사찰에서 도심포교도량으로 면모를 일신했다.

봉은사 미륵대불은 좌대 10m, 석상 11m, 두팔 2m 총 23m 높이에 좌대틀레 17m 석상기둥틀레 8m로 총 1만3천톤의 석재가 소요됐다.

봉은사주지 무상스님은 이날 점안식에서 “수많은 불자들의 포교원력으로 이룩한 미륵대불 조성의 값진공덕을 회향하여 21세기 한국불교의 중심적인 포교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1만2천여 불자들의 발원이 한데 모아진 미륵대불조성불사는 ‘서울강남 경기남부의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의지처인 봉은사 경내에 미륵대불을 조성하자’는故영암스님의 제의로 시작했

다. 지난 86년 4월 불사에 착수 그동안 밀운, 대운, 성문스님에 이어 현주지인 무상스님이 10년불사를 회향했다.

미륵부처님을 모시는 여정에 신도들의 지극 정성이 이어졌다. 입재때 5천여명이 발원한 이후 그해 11월 미륵대불 조성예정지에 스키리조트를 끌고 1백여명이 철야정진을 했으며 9년부터 94년까지 1천일 철야정진을 하여 지난해 4월 착공식에 이어 11월과 지난 1월에는 부처님오신날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석주스님, 총무원장 월주스님, 종회의장 실정스님, 불교신문사 사장 성문스님, 이관희 서남재단이사장, 홍성우 민주총회위원장, 권문용 강남구청장, 김원경 강남구의회위원장, 금동주 강남경찰서장, 이일해 대우건설사장 등 3만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X세대 불자 탤런트 흥진경·이일세양 동국대 연극영화과 입학

타고난 끼에 넘치는 외모, 독특한 불심까지 갖춘 불자 탤런트들이 동국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했다.

격다리 슈퍼모델로 널리 알려진 흥진경양(19세)과 6살때 MBC어린이 드라마 ‘나래는 요술장미’로 데뷔해 아역탤런트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일세양(19세)이 나란히 동국대 연극영화과에 들어가 화제가 되고 있다.

“방송 틈틈이 방배면서 공부했어요”라고

말하는 흥진경양은 KBS2 슈퍼선데이 금혼택내 사람들, 영화 천재선인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연예활동을 펼치는 만능엔터테이너이다.

지난 89년 MBC 어린이드라마 스타탄생에서 주인공 은성역으로 그해 MBC연기대상 어린이 연기자상을 거머쥐었던 이일세양. 얼마전에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원학사로 브라운관에 잠깐 출연하기도 했다.



◇흥진경 ◇이일세

선화에서부터 한국무용을 전공한 이양은 “특정한 이미지에 얽매이기 보다는 카멜레온 같은 변화무쌍한 연기가 되고 싶다”며 “연기자로서 본격적인 공부를 종민대인 동국대에서 하게 돼 너무나 기쁘다”며 활짝 웃었다. (이은자 기자)

목탁소리

이준엽 (취재1부 차장대우)

분종은 막아야 한다

한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공동대응에 대해 선학원 관계자들은 “종단에서 나가려면 스스로 자립해야 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출두하라는 것은 부

고 있다. 조계종과 선학원 갈등의 본질은 종단과 종단간하법인체와의 관계에 있다.

현재 조계종 산하에는 선학원등 재단법인 24개, 사단법인 7개, 복지법인 9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종단 관계자

들은 이들 법인들이 사회법을 내세워 위무이행에 소홀, 종단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종단은 법인 대책특별위를 구성하고 선학원에 대해 실질적인 탈종을 의미

원 1/3추천권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종단 귀속등의 정관 변경을 요구했던 것이다.

오늘의 종단과 선학원 갈등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이제 이열차는 이유불분하고 멈추어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어떠한 변명도 종단변역에 대한 죄과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동안의 양심을 버리고 서기가 다시 만나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모두가 조계종의 일불제자이기 때문이다.

“암·중풍·성인병·부인병·신경통·관절염·당뇨병·고혈압·심장병 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으로 왜 인체의 병이 치료되는가?

인체에 병이 생기는 것은 마비, 확장, 염증, 수축, 경화, 세균, 내분비 부조화, 혈액순환장애, 신경과 체액의 불균형, 기(氣)의 순환이 원활치 못하는 등으로 병이 생기는데 바라밀 쑥뜸으로 온몸에 퍼져있는 유효성분을 침투시키는 경맥통 배움, 단전, 중완혈에 쑥뜸의 강한 에너지를 경락에 투입시키고 피부호흡, 모세혈관, 기혈(氣血) 작용을 적용시켜 기혈을 순환시키며, 5경6부과 각 기관과 조직에 기혈을 보충시켜주고 염증과 세균과 온몸의 노폐물을 배설시켜주어 질병을 치유하는 원리이다.

쑥 쑥뜸은 쑥을 태울 때 생기는 쑥역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 쑥뜸에서는 쑥역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부피(피부명) 속으로 흡수시켜 거기에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살갗을 태워서 뜨거운 고통이나 염증을 생기게 하는 재래식 쑥뜸방법은 주로 뜨거운 열자극 효과로만 병을 치료하고자하여 병을 완치시키는데는 참기 어려운 고통과 함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미흡한 것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경,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성, 생리불순, 냉증, 질염, 오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경련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근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바라밀쑥뜸기의 원리요법과 특징

신약중의 신약인 강박약물인 염산염이 쑥뜸의 재료로 사용되고 약국의 생약재료로 정밀치료와 미묘한 방법을 맞출 수 있게 하였다.

완약제와 과용과 경면주사 등 10여가지로 만든 쑥뜸기통 열 발생대

약속이 타면서 발생하는 쑥역기스와 인공발열의 약효성분이 합쳐져서 쑥뜸기의 작용으로 30초에 열자극 원속으로 세지않고 스며들게 하여 5경6부의 기혈을 순환시키고 염증과 세균을 제거하여 질병을 치유시킨다. 이때 피부표면에 보이는 쑥역기스는 항상, 항상, 항상작용을 하는 인디케이터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쑥뜸표지와 병행하여 복용하는 병약을 얻을 수 있다.

주비사할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0초에 열자극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쑥뜸기 내용

- 1) 바라밀 쑥뜸을 할 수 있는 15가지 도구세트(강화약국 약 2개, 원본 포함)
- 2) 쑥뜸도구인체 변형구
- 3) 쑥뜸기 한세트도 원가격이 사용

바라밀쑥뜸기를 개발하신 각광스님 약력

-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인 회장
- 부산 불교리얼건강연구원 회장
- 100년간 불교간장 및 자연건강법을 연구·수행
- 21년간 수련장을 모으고하여 수련과 강의를 하고 있음

암 등 나쁜 질병은 물론이고 작은 질병에서 큰 질병까지 온갖 질병을 감안에서 자기손으로 쉽게 치유시킬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체내의 면역기능과 저항력을 증강시켜 주는 바라밀 쑥뜸기

바라밀쑥뜸기를 개발하신 각광스님 약력

-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인 회장
- 부산 불교리얼건강연구원 회장
- 100년간 불교간장 및 자연건강법을 연구·수행
- 21년간 수련장을 모으고하여 수련과 강의를 하고 있음

바라밀쑥뜸기를 개발하신 각광스님 약력

-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인 회장
- 부산 불교리얼건강연구원 회장
- 100년간 불교간장 및 자연건강법을 연구·수행
- 21년간 수련장을 모으고하여 수련과 강의를 하고 있음

암 등 나쁜 질병은 물론이고 작은 질병에서 큰 질병까지 온갖 질병을 감안에서 자기손으로 쉽게 치유시킬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체내의 면역기능과 저항력을 증강시켜 주는 바라밀 쑥뜸기

고급 백색 궁단천위에 100% 경면주사로 제작된 금강경 신탈다라니(규격: 60cm x 160cm)의 엄청난 위신력을 아십니까?

돌아가신 분들에게 극락왕생하도록 도와주는 신탈다라니를 영적인 기를 발하도록 100% 경면주사로 만들어 살아있는 사람이 읽고 싶었다면 살아 극락을 찾고 일체 재해를 소멸할 수 있음지도 모른다는 생각하에 시도된 신탈다라니의 사용이 실로 믿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데에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토록 어려웠던 시업의 문장까지 호응으로 바뀌고, 아픈 사람이 지경로 병이 낫고, 수험생이 집중력이 생기고 실수를 하지 않아 거의 합격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운기가 좋은 운기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증에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꼭꼭 참조)

현재 이러한 영험력을 경험한 스님들과 신도들에 의해 많은 신도들이 석구수대로 닦아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바라밀 쑥뜸 할 때 이러한 영험력이 합쳐져 질병이 빠르게 완치될 수 있도록 쑥뜸기 구입시 금강경 신탈다라니 1품씩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 각 시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지사를 모집합니다. (보급에 필요한 가다로그 제공)

구입문의 불교 바라밀 건강연구회 및 상담

-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681번지 (한신상가 5층 5호)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인(원장 각광스님)
-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회
- 전화: (051) 864-3740
- 서울: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 전화: (0335) 34-9490, 39-1906 / 아간: (0342) 706-3060